

WCRC 총회 25차 회의

젊은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관점

빅토리아 터너

제가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도시 에든버러에서 에든버러 스페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페잔트 섬(Pheasant Island)'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페잔트 섬은 비다소아(Bidasoa)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강의 한쪽은 스페인, 다른 쪽은 프랑스입니다. 이 섬은 6개월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관할권이 번갈아 바뀝니다.

이 지역은 바스크 지방(Basque Country)이라 불리며,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서부에 걸쳐 있고, 언어학자들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로 추정하는 바스크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바스크 주민들은 스페인과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즉 자치권을 원합니다. 유럽연합(우리나라가 불행히도 탈퇴한) 덕분에, 이 지역 주민들은 스페인과 프랑스 내 바스크 지역 간 이동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프랑스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에게 국경이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그들이 스페인 쪽 이룬(Irun)에 도착했을 때, 국경이 봉쇄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보행자나 기차 승객, 심지어 작은 보트를 타는 사람들까지도 검문을 받습니다. 아랍계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검문 대상이 됩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스페인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강을 헤엄쳐 건너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프랑스 측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적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다 위험에 빠진 두 이민자를 발견합니다. 한 명은 구조되지만, 다른 한 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습니다. 이 영화는 이 부부가 마을 내 망명 신청자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옹호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에 열리는 정어리 축제 '엔티에로 데 라 사르디나(Entierro de la Sardina)'의 장례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사회가 과거를 묻어두고 재탄생 하게하며 변화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태워지는 정어리는 많은 것을 상징하며 새 생명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상징물이 불을 통과하는 것은 악을 정화하고, 축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뒤집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징적 매장 의식에서의 성찰은 중심 주제입니다.

영화 속 이 부부의 직업은 이러한 축제를 위해 실물보다 큰 대형 인형(정어리 포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여성이 프랑스 국경에서 두 번째로 저지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익사 직전의 소년을 구해 프랑스로 넘어가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차를 카니발 행렬이 따라왔고, 국경 경비원이 주변 상황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형(무게 약 50kg이지만 착용할 수 있도록 균형이 잡혀 있음)은 이 부부와 친구가 된 소규모 이민자 집단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에 다다르자 그들은 인형에서 나와서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달아났습니다. 영화는 정어리 인형의 불태우기로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강연의 두 주제를 만드는데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언 (Witnessing)’, 두 번째는 ‘전통과 정화(Tradition and Purging)’입니다.

증언

벨하 신앙고백서에서 발췌:

-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고통과 필요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서야 하며, 교회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의가 끊임없이 흐르는 강처럼 되도록 모든 형태의 불의에 맞서 증언하고 싸워야 합니다.
-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는 주님이 서 계신 곳, 즉 불의에 맞서고 억울한 이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을 지배하고 해롭게 하는 모든 권력자와 특권층에 맞서 증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증언 개념이 달라진 이유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폴 비릴리오(고인, 프랑스 가톨릭 철학자이자 현상학자)는 지나치게 기술화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인 저항’을 증폭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보는 기계’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이라면 이를 스마트폰으로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보편화된 의지’와 함께 합성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된 듯한 착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을 보기를 원하기도 하며, 마치 장식품을 가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또한 보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가자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찰과 ‘목격’은 다릅니다.

캐나다 신학자 마이클 모렐리는 이러한 ‘컴퓨터’를 통해 지켜보는 행위가 가져오는 ‘힘’—순간적인 통제감과 거의 중독 상태에 가까운 느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술에 몰입할 때 정신적·신체적으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10분이나 30분이 지나 누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실제로 대답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지요? Z세대는 이를 ‘뇌에 나쁜 영향 (brain rot)’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뇌 학대(brain abu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철학자 변형한은 우리가 이러한 기계에 스스로를 노예화하고 있으며, 관심이나 인정을 얻기 위해 우리의 취미, 관심사, 의견, 정체성, 시간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는 약점으로 여겨지고, 성공은 오로지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됩니다. 영국에서는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교회, 노동조합, 직업 단체, 여성 단체, 마을이나 도시 같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말하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항(Resistance)’이라는 사진전을 관람했는데, 여성·노동자 계급·환경·반핵 시위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1926년 총파업 당시 공동체 전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들과 여성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1,400만 명이 재정 부족으로 굶주림에 직면했고, 청년의 90%는 미래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라는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고립됨을 느낍니다. 2023년 기준 8세에서 25세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국에서 5세부터 35세까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은 주요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영국 학교들은 ‘성공’으로 이끄는 과목—경제, 수학, 경영학—에 집중하기 위해 미술, 음악, 연극 과목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존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그 길은 착취로만 유지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오늘의 아이들은,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웨일스 출신 사제이자 시인 R. S. 토마스(1913-2000)의 시 한 편이 이 상황을 잘 나타냅니다.

펜이 나타나자 신이 말씀하셨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써라.”

내 손은 오랫동안 빈 페이지 위에 머물렀다.

마침내 잃어버린 여행자의 발자국처럼 글자들이 빈 페이지 위에 모습을 드러냈고, 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써 내려갔다.

내 손이 그것을 지우려 움직였지만, 삶의 창가에서 기다리던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소리쳤다: “그건 사실이야.”

저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과 행동뿐 아니라 교회로서의 존재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교회들은 쇠퇴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 세례자, 주류 교회에 헌신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가며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고,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활동과 경제적 성장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회중교회에서 잘 알려진 구호,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은 혼란스러워지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 사태에 대해 영국 교회들은 개별적으로 발언하기보다는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로 조심스럽게 선택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 같은 자선단체를 통해 발언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 에이드 자체나 공동 행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큐메니컬 모임에서는 긴장된 출발점—팔레스타인 지지, 다양한 성적 지향성 인정, 물질에 대한 솔직한 발언 등—에 관한 논의가 회피되고, 교회 계층 내에서 올바른 길과 방법만 논의됩니다.

적어도 제게는, 여섯 교회 지도자가 내놓은 희석된 에큐메니컬 성명서가, 영국의 가장 작은 교단 하나라도 지역 논의에서 나온 교회 성명서—아니면 행동 촉구—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술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방식이라는 이론으로 돌아보면, 이 미지근한 연합의 행동은 대중적 지지를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토론과 대화, 분별을 통해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특히 역사적 연결고리를 가진 맥락에서) 안일하게 사역하고 있으며, 감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자선단체와 NGO 처럼 봉사하지 않으며, 불의를 고발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자산 관리에도 신중합니다. 미래를 대비해 자산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속적이고 관리 중심적인 언어가 점점 더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역자 선발 시, '비용 대비 효용'이라는 분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퇴직까지 남은 연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만 전임 훈련 사역자로 고려하는 식입니다. 그의 배경이나 신학적 지식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사례비를 임금과 동일시하는 태도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한 '새로운 뿌리'나 '새싹' 같은 신학적 표현으로 세속적인 관리 언어를 포장하며, 재정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는지를 논하기도 합니다. 일부 교회는 '지속 불가능하다', '부담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 자산을 다른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너는 나이가 많다'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감축과 보호, 과도한 설명과 자기 검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도태시켜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 명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이자 이오나 공동체 최초의 여성 지도자였던 캐시 갤러웨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가복음 10장 17-31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고 따라라고 하신 이야기를 재해석했습니다. 갤러웨이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진실했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어. 그게 걸림돌이었지. 돈이었을까, 지위였을까, 권력이었을까, 잘 모르겠어. 아마 자기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주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분명해. 우리는 제자야.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뿐이야.”

“우리는 확실히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대부분의 시간은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 너무 무섭거든), 우리가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백 배나 더 큰 것은 확실하지 않아. 사실 전혀 확실하지 않아. 우리는 시작할 때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를 위한 침대가 있을지조차 몰라. 대부분 가족을 뒤로 남겨두고 왔지... 이상하게도, 나는 돈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었지.”

영국 교회들은 특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특권에 매달립니다. 우리는 말하고 듣기를 원하지만, 미래를 예측하여 말하기는 꺼립니다. 교회들도 취약한 모습을 내보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 설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약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힘을 되찾도록 도우며,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있나요?

전통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대체로 우리의 특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동시에 강점을 줄이고, 약점을 부각시켜 '빈곤에서 부유함으로'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죠). 우리는 특권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독특하고 특별하며 인상적인 존재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본회퍼 같은 특정 신학자를 연구하는 데 이렇게 집착할까요? 미국식 자유투사로 나타나는 —총을 휘두르며 승리를 외치는 본회퍼의 영화 포스터처럼—혹은 오늘날 진보적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자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학자 앤드류 클라크-하워드 는 『백인 본회퍼: 포스트콜로니얼 순례』라는 책에 대한 훌륭한 서평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류는 이 책의 저자가 중상류층의 비교적 똑똑한 백인 남성과 본회퍼를 동일시하며, 식민주의와 그 나라의 폭력성에 대한 진정한 대면 없이 백인주의를 지식의 통로로 사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서평에서 인용하면:

본회퍼는 급진적, 자유주의적, 보수적 접근을 막론하고, 백인 기독교인들의 거대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그러나 모든 이론에서 유사한 해석학적 접근이 선택되는데, 이는 본회퍼의 저작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자체를 자신의 입장을 대표하는 가장 '진정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저자의 첫 장은 "본회퍼가 우리에게 시작하길 바랬던 것" 으로 시작한다(xix). 『제자도』에 관해 저자는 "본회퍼 자신이 이 잘 알려진 고전의 불완전한 부분을 채우려 한다"(xxi)... 특히 자유주의적 본회퍼 연구에 만연한 이 '인격' 해석학은 오늘날 탈식민 신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인 주체성을 특권화하는 더 광범위한 문제로 이어진다. 본회퍼와 그의 백인성을 문제의 일부로 이해하기보다는, 본회퍼 자신이 무덤 너머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다.

“백인들은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특별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며,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본회퍼도 그랬습니다” (163). 본회퍼가 실제로 할렘에서 아비시니안 침례교회에 참여했던 시절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흑인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 그의 저작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회퍼는 흑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백인 독자와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그 주요 해석자로서 마지막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백인 본회퍼』에서는 이 중요한 맥락이 명확하지 않다.

저자는 포스트콜로니얼 특권을 통해 “자신의 백인성을 탈중심화”하려고 책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신학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본회퍼와 그의 증언에 영감을 준 사람들—미국의 흑인 기독교인들, 그를 지지하며 분명히 도전했던 여성들—을 탐구하기보다는, 본회퍼라는 인물이 여전히 중심 무대에 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연결성을 보여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요시합니다.

마이클 자가사르는 이러한 경향을 ‘지속되는 식민적 습관’ 으로 잘 요약합니다. 이러한 유산은 여전히 개혁주의 전통 내 많은 이들을 신학적·교회적 테두리에 가두며, 특히 ‘적절히’ 개혁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학적인 선조들에게 의존하는 그 습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이클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 선조들은 ‘세상의 극장(theatrum mundi)’이라는 사상과, 계몽되지 않은 부족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에 힘입어서 유럽/서양의 확장에 신학적·도덕적 정당성

을 부여했다. 개혁주의 역사와 핵심 신학 교리의 발전은 식민주의와 그 교활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영화 장면으로 비유하자면—우리는 아직도 정어리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식민주의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마주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특권 공간으로 되돌아간 문제적 전통이나 교리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특권 맹점을 변명하는 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집단적 행동과 힘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URC의 저명한 역사학자 데이비드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주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신학적인 것이 아니다. 개혁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우리 전통은 서로의 분별 속에 있습니다. 이 ‘위험’으로 뛰어드는 것—까다로운 대화 속으로, 폭력적인 과거를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을 솔직히 말하는 것으로—이것이 바로 전통의 본질입니다. 영화 속 카니발 인형들이 자유를 실현했듯이, 우리의 전통은 현재의 질서를 뒤흔듭니다.

이처럼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은 사회가 가르치는 것과 달라 매우 낯설지만, 꼭 필요합니다. 역동적인 카니발 퍼레이드가 국경 관리관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요로운 약속과 우리 모두의 삶을 꽃피우려는 사명은, 특권층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뒤흔듭니다.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회에서 벗어나, 특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힘을 키우는 풀뿌리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권은 예언자를 잔해 아래 묻어버립니다. 교회가 번영보다는 연대를 우선시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그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 빅토리아 터너 박사